

월요 광장

사회의 풀롯과 개인주의의 삶

김우창
이화여대 석좌교수

얼마 전 영국의 ‘시나고그 연합’의 탑비 조난타 색스 경이 뇌임을 앞두고 영국 사회의 현황을 진단한 말이 영국 매체에 널리 보도되었다. 진단이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표현의 특이함이 주목을 끌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의 말은 영국사회가 ‘풀롯’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지난 50년 동안 강화되어 온 개인주의 때문이라고 한다.

특이한 것은 소설이나 연극의 줄거리를 뜻하는 ‘풀롯’이라는 말이다. 사회나 나라에 이야기 줄거리 같은 것이 있는 것일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 말을 듣고 나니, 사람들이 어떤 사회에서 그래도 그것이

살만한 사회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사회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줄거리라면 줄거리일 것이다.

그런데 좀 더 분명한 의미에서 줄거리를 가진 사회가 있기는 있다.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의 노동자 또는 만인(萬人)의 유토피아를 지향한다는 줄거리를 따라 일사분란으로 매진하겠다는 사회이다. ‘행진’이나 ‘대약진’ 등의 말이 동원되는 것만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조국 근대학의 사명을 타고 태어났다”는 말도 일정한 줄거리를 가진 나라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고, 나치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영웅적 이념에 따라 유럽을 제국으로 재편하겠다는 것도 줄거리이다.

이것은 괴로운 사회일 것이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볼 수도 있다. 영국의 정치학자 마이클 오크슬은 “국가는 배는 정해진 출발지에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종착지가 있는 것도 아니다” 국가의 배를 운행한다는 것은 단지 배를 물 위에 떠나게 하고, 고른 항해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 일이 있다. 그리고 그는 정치를 벗어나 살고 싶

은 사람은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앞에 언급한 색스 경은 아마 이러한 느낌 한 국가관을 수긍하고, 물위에 떠 있는 배라고 할 민주사회에 풀롯을 맡한 것일 것이다. 그가 풀롯의 상실을 맡한 것은, 사회적 신뢰의 기초가 되는 문화, 도덕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그의 관점에서 종교적 신앙과 같은 것이 잊혀 간다는 것을 개탄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자기가 사는 사회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막연한 의식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 의식으로 하여 문제

가 있을 때 그 해결 방식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 역시 사회에는 윤리적 방식의 줄거리들이 있어야 하는 것일 것이다.

사회의 풀롯이 없어지는 것은, 위에서 말한 대로, 이익 추구만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하는 개인주의 풍조 때문이다. 그런데 개인주의는 물려도 개인을 개인으로서 지켜나가는 일이 쉬운 일인가?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로 자신의 삶을 조탁(彌彿)해 내는 것이 쉬운 일일 수가 없다. 물론 이것은 개인의 자유 의지로 사회적 윤리 속에 스스로를 편입하는 일이다. 풀롯이 있는 사회란 이러한 자기 완성의 길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회를 말하는 것인지 모른다.

더 가지 브랜드네임에 새뇌(洗腦)되어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하여 기이하게도 가장 사회화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개인주의는 괴로운 것이다. 경쟁사회가 삶의 결을 뒤를 놓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절제하게 개인적으로 조탁되는 삶은 더 괴로운 삶을 뜻한다. 이 괴로움을 대신해줄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의 이념적 구원책이다.

그리하여 개인주의 사회일수록 각종의 광신적 신념의 체계가 번창한다. 그 중, 다른 사람과 사회 전체에 무슨 결과를 가져올지를 고려하지 않고 영웅주의 그리고 혁명주의의 광신도가 되는 것도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주의의 정치철학을 만든 사람의 하나이다. 그는 개인의 자유는 도덕적 추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물론 이것은 개인의 자유 의지로 사회적 윤리 속에 스스로를 편입하는 일이다. 풀롯이 있는 사회란 이러한 자기 완성의 길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회를 말하는 것인지 모른다.

옴부즈맨 칼럼

임호택
동일전자정보고 교감

필자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 첫 번째 업무로 일간지들을 읽습니다. 특히 광주를 대표하는 진솔한 신문으로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광주일보 첫 면 머리기사부터 구석구석 읽어내려 가는 일로 아침을 염니다. 가장 깊이 있게 살펴보는 사회면과 스포츠를 통해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희망을 읽고, 드라마 같은 예측 불가능의 스포츠 기사의 통쾌하고 시원한 승전보로 스트레스를 날려냅니다.

신문은 정보를 담아내는 사회 총체적 매체로서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심층적으로 제공하고 어떤 사건이나 뉴스에 대해서는 비판적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며 정보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고 분배함으로써 인간의 생각을 유발시키는 기본 매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해 온라인 미디어가 넘쳐나고 있어서 편

리함과 속도를 중시여기는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 또한 오프라인(종이신문)보다 온라인 미디어에 편중되어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요즘의 시대를 스마트 시대라 하는데 스마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책과 종이신문보다는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를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정보력에 비해 신뢰성이 떨어지고 정보의 유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적으로 정보를 선택하는 분인에게 있는 반면 신문은 독자의 손에 가기까지 정보의 신실성에 대해 자체적인 겸증과 협의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신뢰성과 경쟁력이 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의 열독 현황과 패턴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문 기사를 읽는 독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신문 열독자는 전체 신문 열독자의 64.9%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열독률은 신문을 읽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신문을 얼마나 많은 독자들이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지표입니다. 개인의 신문 열독률은 25.8%로 나타났습니다.

신문 열독자들은 오전 시간대에 종이신문을 읽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신문 열독시간은 하루 평균 20.8분으로 나타났으나 종류별로 살펴보면 종이신문 13.6분, 데스크톱 PC 4.9분, 스마트폰 1.1

분, 노트북 PC 1분, 태블릿 PC 0.1분 등으로 종이신문의 열독률은 아직까지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많은 독자들이 종이신문의 매력을 알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온라인 미디어의 맹공격 속에서 시대적 조류를 돌파하면서 광주일보는 지역민들의 정보지로서 61살이 되었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정론 매체로서 광주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꾸준히 성장해온 것입니다. 대다수의 지역민들은 광주일보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공유해 왔습니다.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에서 불가결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신문은 독자들에게 생생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독자들이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광주일보는 언론이 사회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고 공정하고 정확한 기사, 정직한 정보, 사랑받는 신문으로 생명력을 유지하며 더 큰 영향력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 지역민들이 하나로 응집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정치적, 사회적인 어두운 이야기보다는 신선하고 활力 넘치는 밝고 즐거운 이야기(Good News)들을 많이 실어서 신문을 통해 독자들이 무한한 에너지와 앤드로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민들의 마음속에 광주일보가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적, 물적 시스템과 권

역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사실을 보도하고 개인이 미처 생각할 수 없었던 사회적 문제점까지도 지적하는 등 진일보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기사를 읽는 것보다는 느낄 수 있도록, 느끼는 것보다는 깨달을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다양한 필진들의 기사로 다른 언론 매체에서 얻을 수 없는 우리 지역의 생생한 정보가 어떠한 힘에도 굽하지 않고 신속하게 지면에 차워져서 독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일보 구성원 모두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민의 소리를 넭넉하게 판단하여 재재하고 지역민들에게 즐거움과 행복감을 줄 수 있다면 종이신문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주일보는 언론이 사회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고 공정하고 정확한 기사, 정직한 정보, 사랑받는 신문으로 생명력을 유지하며 더 큰 영향력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 지역민들이 하나로 응집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정치적, 사회적인 어두운 이야기보다는 신선하고 활력 넘치는 밝고 즐거운 이야기(Good News)들을 많이 실어서 신문을 통해 독자들이 무한한 에너지와 앤드로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자는 종종 관사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잘 살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알 도리도 없습니다. 또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인생의 질반을 교도소에서 보낸 40대 중반의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날 뒷 물건을 훔쳤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나는 치료를 받아야 할 또래이다. 나 징역 살려봤자 나오자마자 또 훔칠 거다”라고 소리지르며 난동을 부리기까지 했습니다. 징역 몇 년을 살게 하든 출소하자마자 또 같은 일을 반복할 텐데, 내가 재판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무력감이 들었지요. 피고인의 마지막 말 한마디는 더욱 가슴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나는 단 번도 용서받아 본 적이 없어.”

인생의 질반을 교도소에 있었으니 마땅한 기술 하나 없을 것이요. 세상물정도 모를 테니 사회생활 자체를 할 수 없었겠지요. 어디를 가든 대접받지 못하였을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어찌면 도둑질밖에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물론 죄에 대한 처벌은 해야지요. 하지만 처벌과 함께 마음과 감정의 치료, 즉 치유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피고인을 정신 검정한 의사도 피고인에게 필요한 것은 관심과 애정이라고 하더군요.

처벌은 처벌이되, 재판을 통해 피고인과 관심을 받고 있고,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관심을 갖고

社說

지역 ‘명품’ 지키려면 품질보증 강화부터

지역 대표 특산품인 굴비, 한우, 사과, 김 등은 국내 명절 선물의 대명사가 된지 오래다. 하지만 워낙 인기가 많은 탓에 해마다 ‘짝퉁’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심각한 상황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농·수산물 적발 건수는 매년 60% 이상으로 증가하고,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추석을 앞둔 지난달 26일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광주와 전남지역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만 보더라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곳이 11개소에 달한다. 전남의 경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2010년 488건 ▲2011년 426건 ▲2012년 484건에 이르는 등 매년

끊이질 않고 있다. 이를 위해 ‘굴비의 고장’ 영광군과 명품 한우의 장흥군, 사과의 창성군 등이 추석을 앞두고 ‘토종 명품’으로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짜’와의 전쟁을 시작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각종 정책이

교육부, 진보교육감이라고 불리의 줘서야

광주시교육청의 지난해 정부 특별교부금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의 평가에서 시·도 교육청이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감정’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시·도교육청 특별교부금 배부 현황’에 따르면 2012년 광주시교육청이 받은 특별교부금은 35억350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16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시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남도 역시 37억350만 원으로, 경기·강원·전북과 함께 즐거운 등급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전남교육청은 앞으로 교육부의 정책과 시·도교육청이 주구하는 교육 목표의 적절한 조화를 꾀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시·도교육청은 정부 부처의 중요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이해도를 높여 지원에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 역시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정책의 강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1990~1991년은 남북관계에 있어 의 미심장한 한해였다.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종식되었으며, 한반도에도 스포츠 교류가 본격화된 것이다.

1990년에는 과거 경평(경성·평양) 축구경기를 되살린 남북한 축구 대표팀 경기가 벌어졌다. 승부를 떠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이어졌고, 한 달 뒤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는 남북 공동으로 출전해 12~17일 평양에서 열렸다.

이듬해 2월, 남북은 탁구와 축구의 단일팀 구성에 합의했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코리아’(감독 문현성)는 1991년 4월 자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남북 단일팀의 실화를 소재로 삼았다.

한 팀이 된 남북 선수들은 말투와 연습방식 등 많은 면에서 갈등을 빚지만 양팀의 라이벌인 현정화(하지원 역)와 리분희(배두나 역)는 복식경기에서 9연패를 노리던 중국을 꺾고, 끝내 우승을 학습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한반도’가 남북한의 국기를 대신해 사용됐고, 남북한 국가 대신 ‘아리랑’이 불렸다.

같은 해 6월 코리아팀 축구 역시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클럽 대회’에 참가하는 광주은행과 보성군청을 비롯한 우리 선수단의 방북을 승인했다.

한국도 선수가 북한에서 열리는 경기에 출전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우리 선수가 1위를 차지하면 대회장에 태극기와 게양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것으로 기대된다.

평양의 태극기

이번 대회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단결된 남북스포츠 교류의 물꼬를 터 남북 단일팀 구성을 추진하는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도 좋은 결과가 이어지길 바란다.

/송기동 체육부장 song@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 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대표전화 222-8111~2200-551	11월(1일간)	금남로 22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 FAX 222-4918		경기	광고문의 062-227-9600
면집부 2200-649		제2부	2200-663
정치부 2200-612		문화생활부	2200-661
대표 FAX 222-4918		여론조사부	2200-651
사회부 2200-616		체육부	2200-697
대표 FAX 222-4267		사진부	2200-693
		기자	2200-536
		인사부	2200-555
		국제부	2200-555
		경기	2200-515
		문화	2200-515
		사회	2200-515
		정치	2200-515
		여론	2200-515
		여론조사	2200-515
		여론조사부	2200-515
		여론조사부	2200-515
	</		